

《...특별법은 돈을 달라는 것도 특혜를 달라는것도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어간 이유를 밝혀달라는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참사의 원인이 된 부정부패가 바로잡혀 다시는 우리처럼 가족과 리별하는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한 해에도 몇개씩 벌어지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아는 국민들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에서 힘없는 국민들만이 우리에게 (국가)였습니다. ...》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고로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응어리진 한과 간절한 소원을 담아 쓴 편지내용의 한 토막이다.

돌아보면 지난 4월 세계를 경악케 했던 《세월》호침몰 사건은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우위에 놓는 자본과 권력이 결탁하여 빚어낸 대형참사이고 끔찍한 일이었다. 그 참사가 일어났지

백수

공화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모두가 감동적인 것이다.

평양남도 안주시인 민병원의 백형기 안과과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얼마전 백형기과장은 뜻밖의 일로 한눈을 실명당한 환자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환자의 이름은 김진혁, 나이는 20대의 한창나이.

너무도 아까웠다. 온 나라에 소문난 안과의사라고 찾아온 그알에 너무도 죄스러웠다. 백형기과장은 환자에게 얼마 안있어 상한 눈만이 아니라 다른 한쪽눈도 실명당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차마 말해줄수가 없었다. 방도 는 오직 하나, 이 젊은이에게 광명을 주기 위하여 누군가의 눈을 바쳐야만 했다.

그 누군가가 누구기겠는가? 당장이라도 자기의 두눈을 바치고싶었다. 허나 자신의 눈을 바치면 수술은 누가 하겠는가.

백형기과장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랐다. 이제 는 70교대를 가까이하고있는 안해, 환자차리로도 항상 병원에서 살다싶이 한 자기로 인하여 언제 한번 예뻐한 정을 나누어 볼새도 없이 늙어온 안해의 얼굴을 떠올리느라니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밀물처럼 가슴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말을 할수가 없었다. 며칠새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듯 밤술도 뜨는등마는등하는 남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던 안해가 먼저 물었다.

## 판 이 한 두 정 치

십일이나 지난 지금도 《세월》호사건은 해결안된 상태로 남조선정국을 세한 격랑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하고있는것은 돈을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진상규명을 바로 해달라는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왜 자식들이 차디찬 바다에 수장되어야 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당한, 인간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참사에 직접적관련이 있는 《정부》와 여당은 목살로 일관해왔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단식으로 쓰러져도 묵묵부답이다.

오죽하면 유가족들의 단식동맹에 남조선의 정치인들과 각계층시민들도 동조단식으로 합세하여 항의단식이 들불처럼 번져가고있겠는가.

국민들앞에 눈물까지 보이며 모든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사과하던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었다며 분통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에서 남쪽의 정치는 인민을 떠난 것이다.

지금도 평양의 문수물놀이장을 찾았을 때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다.

황홀하다고밖에는 말할수 없는 물놀이장에서 남녀로소 할것없이 좋아라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지는데 나의 눈에 류별나게 안겨드는것이 있었다.

대 물놀이장마다 걸려있는 시계였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정해야 한다 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절대로 해주신것이라는것이였다. 가슴이 찢리듯했다.

인민들에게 억만금을 들여 이처럼 세계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주시고도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시계에까지 관심하시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정은령도자 이시다.

그이께서 하시는 일은 하

거리, 문수기생회복원, 류경원... 이 모든것은 항상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는 인민사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도 평양의 문수물놀이장을 찾았을 때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다.

황홀하다고밖에는 말할수 없는 물놀이장에서 남녀로소 할것없이 좋아라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지는데 나의 눈에 류별나게 안겨드는것이 있었다. 대 물놀이장마다 걸려있는 시계였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정해야 한다 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절대로 해주신것이라는것이였다. 가슴이 찢리듯했다.

인민들에게 억만금을 들여 이처럼 세계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주시고도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시계에까지 관심하시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정은령도자 이시다.

그이께서 하시는 일은 하

나에서 백까지 다 인민을 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인민들을 먼저 만나시어 다스린 온정을 베푸시는 령도자의 자애의 정치.

인민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분인데 왜 이북의 국민들이 《친근하신 그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라고 부르며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수 있으랴. 현지지도를 가시면 남녀로소가 그이품에 안겨들고 떠나갈 시 때만 차를 부라가며 물속에 만세를 부르는 격정없이 불수 없는 화폭들이 북에서는 레상사로 펼쳐지고있다.

인민을 동진 정치와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

너무도 상반되는 북과 남의 판이한 두 정치는 민족이 안겨갈 진정한 삶의 품이 어디에 있는가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고 본다.

재민동포 김경라

## 유능한 로텔봉사일군들이 자라난다

오늘 봉사업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산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봉사업은 국가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고있으며 나날이 심화발전되고있다.

새로운 봉사업종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봉사형태와 기능들이 보다 전문화, 구체화, 세분화되고있으며 현재 뿐아니라 먼 앞날에도 대응할수 있는 장기적인 봉사전략들이 수립되고있다.

현대사회는 이미 봉사산업, 봉사공학이라는 개념을 산생시켰으며 봉사업은 해당 나라와 민족의 문명수준과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공화국에서도 최근 봉사업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지난 4월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봉사학교가 새로 나온것이다.

최근 공화국의 각지에는 관광지들이 늘어나면서 호텔업이 많이 일떠서고있으며 앞으로는 지방의 군들에까지 호텔들이 세워질 전망이다.

새로 나온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봉사학교는 이런 현실적요구에 맞게 호텔경영일반, 호텔봉사일군들을 세계적수준에서 양성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학교에는 호텔경영학과, 호텔봉사학과, 요리학과, 편의봉사학과를 비롯한 여러개의 학과를 두고있다.

호텔경영학과에서는 호텔봉사조직, 호텔경영학, 호텔경영전략과 같은 전공지식

을 소유하고 호텔경영활동에 이바지할수 있는 전문가들을 키워내고있다.

호텔봉사학과에서는 민속과 요리, 외국어를 비롯한 전공기초지식과 영접, 숙박, 접대와 같은 전공지식을 소유하고 봉사활동을 능란하게 진행할수 있는 자질을 갖춘 호텔봉사부문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있다.

요리학과에서는 요리가공분야의 전공지식을 소유하고 요리가공을 능숙하게 할수 있는 호텔봉사부문의 요리사들을 키워낸다.

편의봉사학과에서는 리발, 미용, 미안, 안마, 오락과 같은 편의봉사분야의 폭넓은 전공지식을 소유하고 높은 실천실기능력을 갖춘 호텔봉사부문의 편의봉사기능공들을 키워낸다.

《우리 학교에서는 사회정치과목과 함께 수학, 정보기술기초, 민속학, 조선료리, 외국료리, 예술기초, 접대봉사, 호텔봉사실기, 호텔실비관리, 편의봉사위생, 머리형태도안실기, 미안실기, 안마

실기, 체육 등을 비롯한 봉사업에 필요한 여러 과목들을 강의하고있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봉사업의 특성에 맞게 2개이상의 외국어를 배워주고있으며 리론강의보다 실천실기강의 비중을 높이는 원칙에서 교육하고있습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봉사학교 교장 박동창선생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는 학교에서 실습기초부터 한개 호텔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봉사학교의 입학대상은 고급중학교졸업생과 현직 일군이며 학제는 2년, 3년이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호텔봉사와 관련한 전문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배우고 현장에 나가게 된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봉사학교가 나온것은 사회주의문명국의 면모에 맞게 나라의 봉사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호텔봉사부문의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김 춘 경



##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안 해의 눈에 수술칼을 댄 안과 의사

《진혁이의 눈상태가 그렇게 도 나빠요?》

《누군가의 눈이 필요하오. 내 눈이라도 주고싶은 심정이요.》

한숨을 내쉬며 하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안해는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아, 그 래서였구나. 그래서 요사이 나날 보는 남편의 눈빛에 그토록 미안함과 부자연스러움이 력력했구나.

일생을 원앙새처럼 살아온 그들부부였기에 남편도, 안해도 한마디의 말에서 서로의 심정을 쉬이 읽을수 있었다.

《당신은 수술칼을 들어야 할 의사예요. 내가 있잖아요?》

《?!...》

《나야 온 나라가 다 아는 안주시인민병원 안과과장 백형기의 안해가 아니예요?》

순간 백형기선생의 두눈에 고이는 맑은 이슬. 아, 사랑하느라 안해여. 인간이 이렇듯 아름다울수 있단 말인가.

그때로부터 얼마후인 2014년 1월 진혁이의 눈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백형기선생은 수술을 끝내고 나서 자기의 일생에서 제일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진혁이의 어머니와 진혁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백형기선생께 부부에게로 달려왔다.

《남을 위해 제 안해의 눈에 수술칼을 대다니. 선생님,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파장선생님, 우리들도 있는데 왜?! ...》

진혁이의 어머니도, 억센 사나이들도 모두가 호는것.

그것은 진정 고풍스러웠었다. 백형기선생의 높은 의술에 대한 찬사에 앞서 뜨거운 정을 지닌 아름다움 인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진혁이는 이렇게 눈을 떴다.

그가 이렇게 광명을 주고 활력을 부여준 환자는 몇백, 몇천을 헤아리느니 모른다.

1960년대초부터 오늘에 이



진혈육의 정을 안고 영예군인을 찾은 학생들

## ◆ 평 양 고 려 호 텔 에 서 ◆

편리한 숙박조건, 친절한 봉사

공화국으로 찾아오는 외국인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요즘 평양고려호텔은 손님맞이로 바쁜 모습이다.

풍치수려한 평양 시내의 한복판에 쌍둥이형식건물이 솟아 서있는 평양고려호텔.

198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고려호텔에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기호와 생활습관의 편의를 충족시킬수 있는 특별방, 호화방, 고급방, 표준방을 비롯한 500여개의 방들이 있다.

이곳 호텔의 연회장과 식당들에서 제능있는 요리사들이 만드는 평양명반, 불고기, 신선로를 비롯한 이름난 민족음식들과 세계적인 명

로리들은 그 독특한 맛으로 하여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호텔의 제일 으뜸의 원형회전망식당에서는 연회와 동식사를 하면서 평양의 아름다운 전경을 부감하는 외국인들을 볼수 있다.

회단, 연단실들과 영화관,

물놀이장, 한증탕, 육체운동실, 탁구장, 당구장, 안마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갖추어져있어 손님들은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곤 한다.

호텔의 봉사수준도 매우 높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성의껏 대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살려 봉사자들은 호텔에 든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기호와 취미, 특성에 맞게 손님봉사업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방을 하나 관리해도 자기 집처럼 알뜰하게, 세탁을 하도 해도 리없이 깨끗하게, 로리를 하나도 없애 손님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게 온갖 지식을 다해가고있는 봉사자들이다. 이곳 봉사자들은 호텔에 서 숙식하는 외국인들이나 해외동포들의 생일날이면 친척육의 생일치럼 기비하여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고 노래도 불러주며 풍성한 생일상도 차려주고있다.

이곳 봉사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아름다운 미풍은 수많은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의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연례간 한 외국손님이 이곳 봉사자들에 대한 세탁을 말걸적이 있었다. 그 세탁물속에는 많은 량의 돈이 들어있었다. 호텔종업원에게

서 돈을 받아안은 외국손님은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조선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머리를 숙이었다고 한다.

고려호텔을 찾았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말.

《고려호텔에서 제 집에서와 같이 생활하였다. 이곳 종업원들의 극진한 환대는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고려호텔은 또 하나의 《우리 집》이었다. 돌아가서도 고려호텔과 호텔봉사자들을 잊지 않겠다.》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어느때도 고려호텔에서와 같이 진정애 넘친 따뜻한 친절한 봉사를 받아보지 못했다. 당신들과 조선인민에게 경의를 표한다.》

《처음으로 생일을 해외에서 맞았다. 그것도 조선에서. 고려호텔에서 생일을 원것은 참으로 행운이 아닐수 없다.》

《고려호텔은 언제나 뜨거운 정, 사랑을 가슴가득 느끼게 하는 아늑한 보금자리이다. 훌륭한 전문봉사와 세심상, 친절감을 어디서나 느낄수 있었다. 다양하면서도 섬세한 로리는 최고의 평가와 칭찬을 받을만 하다. 고려호텔에서 훌륭한 나날을 보낼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

본사기자 김 철 호

평양시내에 있는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하여 보통강백화점, 광복지수산업점 등 일부 백화점들과 상점들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외국돈을 조선돈으로 바꾸어주어 이 상가들을 리용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기자는 그중 광복지수산업점집이라고 명명한 백화점에 들렀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누구든지 입점할수 있는 분위기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계산대 옆에는 외화바꿈이라고 쓰인 조그마한 창구가 보인다. 그 유리창에는 《오늘의 시세》

라는 안내문과 함께 여러 나라 화폐환율이 표기되어있었다. 이러한 환율은 국제공식환율이 아니고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특별을 주는 이른바 《국제협동화폐가격》이라고 한다. 국제환율로 치면 1US\$에 조선돈으로 120원가량 되는것으로 계산된다.

미국이나 일본, 남조선 등에서 물건을 사는것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1층, 2층, 3층을 오르내리는 곳에는 자동승강기가 놓여있다. 식료품, 학용품, 가구, 전자제품, 자전거, 어린이놀이감 등 분위기는 평양제1백화점이나 보통강백화점모두 같았다.

물건들을 사고 계산할 때

## 날이 갈수록 달라지는 평양의 분위기

—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

에는 자동계산기로 항목별가격이 나오고 합산이 되어 빠른 시간에 계산을 할수 있도록 지불체계가 되어있어 리용하기가 편리했다.

나는 경제적이유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자전거를 하나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싶어 멋지게 만든 자전거 값을 물었다. 앞뒤에 물건을 실는 설치가 되어있는 자전거 한대를 살 마음을 먹게 되었다.

창천거리에 있는 해맞이 식당을 포함하여 아동백화점 및 현대적으로 꾸러놓은 상점들은 서방 어느 사회에 있는 상점들수준에 못지않았다. 어느 한 상점에서 일하는 녀성관리인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살림집을 하나 지어도, 상점이나 식당을 하나 꾸러도 최고급으로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고려호텔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상점들과 식당의 시설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상점들과 식당들 못지 않게 잘 꾸러놓았다. 탁자와 의자를 비롯하여 카운터의 시설, 실내장식물, 조명 등 모두가 신식이었다.

시설들이나 내부장식들이 서울거리의 고급상점들이나

고급식당들에 못지 않은 모습들이지만 다르게 있다면 상점들과 식당들의 간판들이 모두 우리 글로 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창랑거리에 있는 식당, 기념품점 등의 그 이름들을 털거해보면 대동강백화점, 창랑술집, 꼬치구이집, 메기탕, 짜장면집, 단고기집, 닭구이, 사계절식당, 기념품매대, 창랑산국수집, 흑백주집, 서양로리, 맥주집, 순두부국수집, 불고기집, 금강술집, 평양우동집, 언덕식당, 네거리상점, 지점집 등 우리 말

표기로 되어있다.

또한 조선국제관광버스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유럽인들, 미국인들, 중국인들,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인들 그리고 식당, 차점, 서해잡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청년호텔에 있는 햄버거집, 유럽계합작회사가 운영하는 서양식카페, 광복거리나 평천거리의 이탈리아음식 뼈짜집 등에도 중동지역의 관광객들을 비롯하여 외국인들로 붐비었다.

평양시의 분위기와 환경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있

다. 새로 일떠선 창천거리를 포함하여 옥류교건너 동평양 쪽에도 류경원, 해당화관을 비롯하여 로라스케트장 등 멋쟁이건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건물양식들도 결코 내부장식, 지하주차장까지 어느 선진국들의 건물양식이나 내부시설들에 비해 못지 않았다.

이러한 곳을 참관하는 외국인들이나 해외동포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그 리유에 대해서는 김정은령도자의 통 큰 령도력과 함께 군사력, 자위력과 군민의 일심단결이 이러한 분위기를 창조해내고있다고 말했다.

로 길 남

